

[AA05] 도산서원(陶山書院)의 혼상(渾象) 복원(復元)

이용삼

충북대학교 천문우주학과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전시되어 있는 혼상은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1~1570)이 제자 간재(艮齋) 이덕홍(李德弘, 1541~1596)에게 명하여 제작한 것으로 도산서원의 문인들에게 교육용으로 만든 것이다. 퇴계는 천문관측을 중요하게 여겨 제자 중에서 투호놀이로 우승한 가장 덕 있는 사람을 골라 천문관측기구를 만들게 했다. 그 결과 선발된 이덕홍은 퇴계의 제자 가운데 가장 많은 주석서를 남긴 유학자이며, 역법이나 산술에도 정통한 과학자이다. 이 혼상 유물의 보존상태는 깨손되어 별자리가 지워지고 찢겨져 형태만 알 수 있을 정도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유일한 혼상일 뿐만 아니라 440여 년 전에 제작된 오래된 소중한 천문유물이다. 이 혼상 복원을 위해 안동 MBC 창사36주년 다큐 특집드라마(퇴계의 하늘, 혼천의) 제작팀과 함께 퇴계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의 전시관인 옥진각(玉振閣)을 찾아 학술 조사를 수행하였다. 실측한 유물의 규격에 따라 설계도와 복원 조감도를 완성하였다. 별자리표기를 위해 천상열차분야지도의 1467 개 별의 위치를 판독하고, 혼상의 천구면(天球面)에 투영한 별자리를 작도하여 적도에서 남북 방향으로 나누고서 동서방향으로 10도 간격으로 분할하여 72장을 완성하였다. 이 별자리들은 천문도와 달리 동서(좌우)방향이 서로 바뀌어 지도록 작도하여 도산서원 유물의 원형대로 지름 49cm의 한지와 목재를 사용한 천구(天球)를 제작하여 복원하였다. 또한 청동 등 견고한 재질을 사용하여 야외전시용 혼상(복원 제작소: (주) 옛 기술과 문화)을 큰 규모인 직경 1200mm의 구면으로 정교하게 가공하여 복원하였다. 아울러 도산서원의 혼상과 혼천의 관련 문현을 조사하여 퇴계(退溪)의 연보(年譜)를 살펴 제작년도 등 혼상제작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제시하고자 한다.